

SUV 비중 확대...기아차 1분기 수출단가 1.5% 상승

대당 1만5471달러
5개 완성차 업체 평균 1.9% ↑
쉐보레 트랙스·투싼·스포티지 영향



유럽형 스포티지

기아자동차 1분기 수출단가가 대당 1만5471달러(182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분기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GM),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의 평균 수출단가는 1만 5748달러로 1년 전보다 1.9% 높아졌다.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원화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수출단가는 1773만원에 달한다. 1년 전 1658만원에 비해 6.9% 높아졌다.

수출단가는 수출금액 91억6000만달러를 수출 물량 58만1436대로 나눈 것이다. 물량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금액이 3.3% 증가했다.

수출단가는 지난해 1분기 1만5461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3분기 1만5058달러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4분기 1만5642달러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에 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4월 전체 자동차 수출 동향을 보면 물량보다 금액 증가율이 더 높다. 물량은 3.0% 늘었는데 수출액은 5.8% 증가했다. 업체별 수출단가는 현대차가 1만7204달러로 5.6%, 기아차는 1만5471달러로 1.5%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했다. 쌍용차도 1만8359달러로

■ 완성차 5개사 1분기 수출실적

(단위:대, 달러)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계
2018년	수출대수	21만7241	20만3829	10만339	6676	4만5345	57만3430
1분기	평균단가	1만6285	1만5242	1만3038	1만8235	1만7452	1만5461
2019년	수출대수	22만7289	22만7527	9만7770	6277	2만2573	58만1436
1분기	평균단가	1만7204	1만5471	1만2656	1만8359	1만6553	1만5748
증감(%)	수출대수	4.6	11.6	-2.6	-6.0	-50.2	1.4
	평균단가	5.6	1.5	-2.9	0.7	-5.2	1.9

0.7% 올랐다.

단, GM과 르노삼성은 1만2656달러와 1만 6553달러로 각각 2.9%, 5.2% 하락했다.

완성차 업체 수출단가 상승은 스포츠유틸리티(SUV) 등의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1분기 모델별 수출 순위 1~3위는 모두 SUV가 차지했다.

한국GM의 소형 SUV인 쉐보레 트랙스가 6만 2288대 팔리며 1위를 차지했고 현대 투싼(5만 9093대)과 코나(5만5189대)가 뒤를 이었다. 기아 스포티지는 3만5617대, 니로는 2만5550대, 스토닉은 1만9037대 팔리며 각각 6위, 9위, 10위를 기록했다.

10위권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순

위에 든 SUV 차종이 4개에서 6개로 늘었다.

완성차 업체들은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승용차 가운데 SUV를 포함한 다목적 차량 수출은 1분기에 35만5528대, 62억1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물량은 4.3%, 금액은 8.0% 증가했다.

전체 승용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 63.7%, 금액 70.1%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9% 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다.

다목적 차량은 수출단가가 1만7468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수출단가(1만5737달러) 상승률(1.8%)의 두배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기아자동차는 강원 고성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아차 강원 산불 피해 돕기 '친환경차 나눔 캠페인'

기아자동차가 강원 고성 산불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친환경차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아차는 친환경차(EV, HEV, PHEV, LPI 차량)를 1대 판매할 때마다 5000원씩 적립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립된 기금은 생필품, 가전제품, 생계비, 주택보수비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기아차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일반 판매가 허용된 LPG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6월 말까지 K5, K7 LPI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LPI 더블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차량 구매 때는 10만원 할인 혜택과 함께 SK LPG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면 1회 최대 3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캠페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아차 공식 홈페이지(k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온라인 고객 의견 청취 '히어' 운영

현대자동차는 온라인 상에서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수시로 듣는 프로그램 '히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히어'는 현대차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고객 소통 프로그램 'H음부즈맨'을 온라인 버전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라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히어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추가 정보를 입력해 '패널'이 되면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공간인 랩(Lab)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다. 랩은 ▲상품(차량·신기술·친환경) ▲고객 서비스

▲정비 서비스 ▲판매 채널 ▲시장·트렌드 ▲기타 등 6개의 카테고리 내 다양한 주제로 개설된다. 패널은 자신이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랩에 자동 매칭되어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등록된 질문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오는 15일까지 패널로 가입한 고객이 히어 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히어'에 바라는 점을 댓글로 남길 경우, 모두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1잔)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히어' 사이트(hear.hyund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기아차

유망 사내 스타트업 3곳 독립기업으로 출범

현대·기아차 유망 사내 스타트업 3곳이 독립기업으로 출범한다.

현대·기아차는 엠바이움, 튠잇, 플레드 등 3개사가 분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3개사의 독립기업 출범으로 현대·기아차가 2000년 벤처플라자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독립시킨 사내 스타트업은 11개사로 늘었다. 이로부터 독립한 3개사는 3~5년의 육성과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와 관련한 친환경 기술, 카셰어링 관련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엠바이움은 에어컨 냄새나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정화 기능을 강화한 '에코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현대차가 올해 초 인도에서도 출시한 현지 전락형 차종 '쌍드'로 적용됐다. 엠바이움은 올해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지닌 에어컨 필터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국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튠잇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사용자에 최적화하는 '차량 개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친환경차 카셰어링 업체 제이카의 운영 차량에 개인화 기술을 적용했다.

플레드는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현대·기아차 연구원들이 모여 만든 유아용 카시트 전문 브랜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